

# 광주·전남 전문대 학생수 30% 줄었다

### 최근 17년간 학령인구 감소 4년제에 비해 현저히 줄어 교수 1인당 학생수 50명 열악 국가교육회의 호남권 경제회

학령(學齡)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최근 17년 동안 광주·전남지역 전문대학 과정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도 4년제는 35명, 전문대학은 50여명에 달해 교육여건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31일 전남대에서 열린 '고등교육전문위원회 회

남권 지역 경제회'에서 배포한 '호남권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과정의 이 지역 학교 수는 광주의 경우 11곳, 학생 수는 8만6232명, 학교당 학생 수는 7839명이다. 전남은 10곳(학교 수) 4만8802명(학생 수), 4880명(학교당 학생 수)이다. 전문대학 과정은 광주의 경우 7곳(학교 수) 2만7128명(학생 수) 3875명(학교당 학생 수), 전남은 9곳(학교 수) 2만7655명(학생 수) 3073명(학교당 학생 수)이다. 이를 17년 전인 2000년과 비교하면 4년제 대학 학교 수는 광주의 경우 2곳이 늘었고 전남은 2곳이 줄었다. 전문대학 과정은 광주는 7곳 그대로이며, 전남은 11곳에서 2곳이 감소했다.

4년제 대학과정 학생 수의 경우 광주는 2000년 8만6902명에서 지난해 8만6232명으로 1% 감소했다. 전남은 5만3256명에서 4만8802명으로 8% 줄었다. 특히 전문대학 과정 학생 수 감소는 훨씬 심각했다. 광주는 2000년 4만1572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2만7128명으로 35%나 감소했으며, 전남은 4만1400명에서 2만7655명으로 33%나 줄었다. 전문교원 1인당 학생 수는 4년제 대학의 경우 광주전남 모두 40~45명 선에서 현재는 30~35명 선으로 낮아졌다. 전문대학 과정의 전문교원 1인당 학생 수도 60명 안팎에서 50명 안팎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대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광주는 1140만원, 전남은 1150만원이다. 학교당 평균 재정규모는 광주는 1119억원, 전남은 407억원이다. 대학졸업자의 취업지역은 광주의 경우 관내 취업이 49%, 타지역 취업 36.5%, 기타 미취업 순이다. 전남은 관내 취업이 46%, 타지역 취업 36.1%, 기타 미취업 등이다. 국가교육회의 장수명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의 절벽 앞에서 지역대학들은 더욱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1인당 교육비는 매우 낮은 수준이고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초중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쿠알라룸푸르 5·18 국제 사진전 5·18 국제 사진전이 지난달 3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문화공간에서 열렸다. 5·18기념재단은 'UN 세계 실종자의 날'을 맞아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거점회의에 참석, 광주 5·18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말레이시아=최현배 기자choi@

## 민주·인권운동 싹 틔웠던 '봉심정'을 아십니까?

### 현장 4곳 둘러보는 투어 프로그램 광주 남구 매일 한차례씩 운영

광주시 남구가 1970년대 광주·전남 민주화 운동의 싹을 틔웠던 봉심동 옛 봉심정 터에서 민주인권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한다. 남구는 "인권 문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오는 6일부터 12월까지 매일 한차례씩 남구 내 인권 관련 유적지 투어 및 토론을 하는 '인권, 공감을 되새김하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남구지역 민주·인권 관련 역사 현장 4곳을 둘러보는 코스로 짜여졌다. 대표적인 곳은 봉심정이다. 1970년대 존

재했던 봉심동 제석산 인근의 한 제각으로, 김정길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상임의장과 이강 광주전남민주화운동 동지회 상임고문, 박현욱 상무중 교장 등 광주·전남 민주화운동투사들이 함께 시국현안을 고민했던 장소다. 현재 철거돼 그 자리에는 가건물만 남아 있다. 두 번째 투어 장소는 사직동이다. 한팔 의병장 기삼언 장군과 심남일 의병장의 순절비가 세워져 있으며, 광주 3·1만세운동의 최초 의거지인 작은 정터가 있는 곳이다. 4·19의거 영령 추모비와 5·18민중항쟁 사적지, 6월 항쟁의 사적지인 서현교회가 자리하고 있다. 송암동 원제 저수지 일원은 5·18 당시 11공수여단 63대대와 보병학교 교도대가

오인 전투로 공수부대원이 사망하자 11공수부대원이 주민들을 상대로 보복에 나서 학살을 자행한 장소다. 마지막은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이다.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수피야어고 광주 3·1운동 만세운동 기념탑에서 사적동 작은장터까지 만세 시위 코스를 걷고, 5월 민중항쟁의 기록물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집필한 소설가 황석영 선생이 장갑신을 집필했던 양림동 생가를 둘러본다. 또 광주YMCA 창립자이자 한센병 환자의 아버지였던 고(故) 최흥중 목사가 한센 병 환자 보호운동을 시작한 유적지도 탐방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선착순 25명이며, 전화(062-607-2222)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현경 기자 young@

## 진도 세월호 분향소 동거차도 초소 철거

유가족과 국민이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선제인양 과정을 지켜보던 진도 팽목항 분향소와 동거차도 초소가 사라진다. 2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에 따르면 3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팽목항 분향소와 동거차도 초소를 철거해 현장을 정리한다. 그동안 4·16세월호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인양과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지난 2015년 8월 29일 사고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섬인 동거차도의 산마루에 감시·기록 초소를 만들고 상주했다. 참사 초기 수습 거점이었다던 진도 팽목항에 자리한 합동분향소는 시민 도움으로 2015년 1월 14일 문을 열어 추모객을 맞이했다. /김현경 기자 young@kwangju.co.kr

## 백남기 농민 의료비 구상권 소송으로 정리될 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와 전·현직 경찰 관계자들에게 고(故) 백남기 농민 의료비 납부를 요구하며 청구한 구상권 문제가 결국 재판을 거쳐 정리될 전망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가소송을 대표하는 법무부는 공단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순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당시 살수차 운용요원 등을 상대로 백씨 의료비 2억6300만원 납부를 요구한 사안을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경찰은 애초 소송 없이 의료비를 납부한다는 입장을 정했으나 법무부는 '소송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나서 납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경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오늘의 날씨

|     |       |     |       |
|-----|-------|-----|-------|
| 해돋이 | 06:06 | 달몰림 | 23:54 |
| 해질  | 18:57 | 달뜨기 | 13:18 |

가을 재촉하는 비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다.

|    |         |       |     |         |       |
|----|---------|-------|-----|---------|-------|
| 광주 | 차차흐려져 비 | 23/28 | 보성  | 흐리고 비   | 21/27 |
| 목포 | 차차흐려져 비 | 24/27 | 순천  | 흐리고 비   | 22/28 |
| 여수 | 흐리고 비   | 24/27 | 영광  | 차차흐려져 비 | 23/28 |
| 나주 | 차차흐려져 비 | 23/28 | 진도  | 흐리고 비   | 24/28 |
| 완도 | 흐리고 비   | 24/27 | 전주  | 차차흐려져 비 | 21/27 |
| 구례 | 차차흐려져 비 | 21/27 | 군산  | 차차흐려져 비 | 21/26 |
| 강진 | 흐리고 비   | 23/27 | 남원  | 차차흐려져 비 | 19/26 |
| 해남 | 흐리고 비   | 23/28 | 흑산도 | 차차흐려져 비 | 23/27 |
| 장성 | 차차흐려져 비 | 22/27 |     |         |       |

◇바다 날씨

|    |        |      |         |
|----|--------|------|---------|
|    |        | 오전   | 오후      |
|    |        | 풍향   | 파고 (m)  |
| 서해 | 앞바다    | 남동~남 | 0.5~1.0 |
| 남부 | 면바다    | 남동~남 | 1.0~2.5 |
| 남해 | 앞바다    | 남~남서 | 0.5~1.0 |
| 서부 | 면바다(동) | 남~남서 | 1.0~2.0 |
|    | 면바다(서) | 남~남서 | 1.0~2.0 |

◇생황지수

|     |     |      |
|-----|-----|------|
| 위험  | 보통  | 보통   |
| 식물독 | 지외선 | 미세먼지 |

◇물때

|    |       |       |
|----|-------|-------|
|    | 간조    | 만조    |
| 목포 | 12:17 | 07:01 |
|    | --:-- | 19:53 |
| 여수 | 07:46 | 01:20 |
|    | 20:31 | 14:30 |

◇주간 날씨

|       |       |       |       |       |       |       |
|-------|-------|-------|-------|-------|-------|-------|
| 4(화)  | 5(수)  | 6(목)  | 7(금)  | 8(토)  | 9(일)  | 10(월) |
| ☁     | ☁     | ☁     | ☁     | ☁     | ☁     | ☁     |
| 24/30 | 21/29 | 20/29 | 22/26 | 21/28 | 20/29 | 20/29 |

## 북구, 5일 전남대서 청년 일자리 박람회

### 한전·농어촌공사·콘텐츠진흥원 등 10개 기관 참가

#### 17개 지역기업 현장 면접

광주시 북구는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남대 컨벤션홀과 광장 일원에서 '청년, 내일(My Job)'을 향해, 2018 북구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행사 주관은 북구노사민정협의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남대학교가 맡는다. 이번 행사에는 올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자리한 한전·한전KPS·한국농어촌공사·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0개 기업·공공기관이 참여해 취업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각 기업·기관 취업 상담관이 참여해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등 청년 구직자들에게 채용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대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LG이노텍 등 5개 기업 인사·직무 담당자가 취업정보와 직무분석을 통한 채용

지원 노하우를 알려주는 직무 컨설팅 시간도 마련된다. ㈜이솔루션·옴토닉스·현대이엔티 등 강소기업으로 꼽히는 17개 지역 기업들은 현장 면접을 통한 인력재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한 구직자들은 희망업체와 1:1 맞춤형 현장면접을 통해 취업여부를 결정하거나 2차 심층면접을 할 수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테크노파크, 전남대·호남대 대학일자리센터 등 8개 기관도 취업정보와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안내, 청년·여성·노인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구직상담 등 취업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주형 한국산업인력공단 과장은 오후 2시부터 컨벤션홀 내 강당에서 '블라인드 채용 퓌팅과 팩트 체크'를 주제로 취업특강을 한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 無덤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8-3(4층)  
☎(062)412-2800